

한국 사적연금 가입률 23% 불과

선진국 대비 매우 낮아... 고령화 속도 매우 빠르고 노인 빈곤율 OECD 평균 3배 초과 불구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사적 연금(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지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의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14%) 및 초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 20%)이 각각 18년, 8년으로 주요국 대비 매우 빠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증가하는 등 OECD 평균의 3배를 초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퇴직연금 등 국내 사적연금의 자발적 가입율은 23.4%로 미국(47.1%), 영국(43.3%), 독일(71.3%), 등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16.7% 수준에 불과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 81.2%인 반면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6.5%에 그쳤다.

퇴직자의 퇴직금 연금전환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이는 일시금 수령이 보편화돼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내 사적 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선진국보다 연금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2014년부터 연금저축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연금저축보육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



프리덤으로 음악감상하세요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제이버드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프리덤 출시 행사에서 트레이너 정아름과 모델들이 프리덤을 착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에서 23위로 낮은 편이다.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이 OECD 평균 21.5%인 반면, 한국은 15.7%에 불과하다. 일본은 23.8%, 미국 26.8%, 호주 28.5%, 프랑스 30.5%, 독일 36.2% 등이다.

문제는 국내의 경우 노후준비의 방법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 노후준비자금으로 불충분하며, 경제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적용돼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시 40년 가입기준 70%에서 현재 4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18~59세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50.6%로 절반인 49.4%가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노인빈곤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층 대상 복지시스템 및 공·사적 연금 부족 등으로 노후준비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연금정책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퇴직금의 연금전환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및 개인연금 가입 및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사적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우정우·김호민 군 맨유 홈경기 초청돼

쉐보레 마스코트 활동... 맨유 선수와 나란히 입장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Manchester United FC, 이하 맨유)의 공식 스폰서인 쉐보레(Chevrolet)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1명의 어린이를 쉐보레 마스코트로 선발, 지난 24일(현지시간) 열린 맨유와 레스터시티(Leicester City)의 정규 리그 홈 경기에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부터 맨유의 공식 후원사가 된 쉐보레는 올해로 3년째 축구로 인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어린이 11명을 매년 쉐보레 마스코트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역시 2명의 한국 어린이를 포함해 미국,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축구 꿈나무들을 맨유 홈 경기에 초청했다.

이들 가운데 한국에서 초청된 우정우 군(11세)과 김호민 군(13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쉐보레 마스코트로 선발됐으며, 해외 지역 마스코트들 역시 쉐보레가 현지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해

경기장 개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 실천 프로그램(Beautiful Possibilities Program)'에 참가한 아이들 중 선정됐다.

우정우 군과 김호민 군은 경기 당일,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맨유의 안토니오 발렌시아(Antonio Valencia)와 제시 링가드(Jesse Lingard) 선수와 나란히 입장했으며,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전통에 따라 자신들의 셔츠를 벗어 마스코트들에게 선물했다.

이들은 경기 전날인 지난 23일, 맨유 홈 구장인 올드 트래퍼드(Old Trafford)에서 팀 선수들과 감독을 만났으며, 팀의 전설적인 선수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는 등의 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쉐보레는 '아름다운 가능성 실천 프로그램' 외에도 2012년부터 '원 월드 플레이(One World Play)' 프로젝트를 통해 낙후지역 약 4,500명의 청소년에게 축구를 전파해왔다. /조선·류정곤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고객정보 마구잡이 수집”

제윤경 의원 “금융사에서 5년간 5천만건 넘겨받아 고발건수는 899건 불과”

최근 5년간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가 5천만건에 달했다.

FIU가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전달한 정보 중 실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건수는 소수에 불과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 금융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건으로 집계됐다.

의심거래보고(STR)가 212만건, 고객현금거래보고(CTR)가 총 4791만건으로 CTR이 압도적이었다.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고객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필요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이 정보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FIU가 수집한 고객금융정보

중 불법 혐의가 있어 법집행기관에 넘어간 사례는 극히 적었다. 지난 5년간 FIU가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긴 STR, CTR 건수는 총 7만5863건으로 금융사가 FIU에 넘긴 정보 대비 0.1%에 불과했다.

사법기관에 고발조차된 비율도 극히 낮았다. 국세청 고발건수는 지난 5년간 313건, 관세청 고발건수는 586건으로 총 고발건수(899건)가 1000건이 채 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세청이 수집한 건수 대비 1.1%에 그쳤다. /뉴시스

FIU는 ‘금융실명거래법’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받아 영상 없이도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에서 FIU에 제공한 STR 중 약 80%가 전산분석에 의해 자동적으로 필터링돼 방치되는 실정이다. 또 STR은 해당 금융정보 당자에게 통보의무가 없으며, 그나마 통보의무가 2013년 11월에 생긴 CTR 건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통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고객금융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뿐더러 국민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삼성 스마트폰 전자과 흡수율, 애플·LG 보다 낮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미국 애플 스마트폰보다 전자흡수율(SAR)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AR은 일상생활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할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전자파를 숫자로 표현한 값이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사별 핸드폰 SAR’ 자료에 따르면 애플 휴대전화 SAR(단위 W/kg)은 2014년 0.992, 2015년 1.059, 2016년 1.166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는 2014년 0.475에 서 2015년 0.402, 2016년 0.5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LG전자 휴대전화는 2014년 0.559에서 2015년 0.861, 2016년 0.960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공개한 ‘SAR 측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49개 전 모델이 1등급을, 애플 휴대전화 6개 모델은 모두 2등급을 부여받았다. LG전자 휴대전화는 52개 모델 중 14개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2등급이다.

최 의원은 “지나해달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완화한 것은 전자파흡수율 상승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카드·할부리스 허위 과장 광고 막는다

여신금융협회 심의 받아야

여신금융협회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성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이달 말부터 협회가 담당하게 됐다. 이에 카드와 할부금융, 시설패어 등 여신금융상품에 관해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안전으로 올라가 조정을 받으며 심의위의 조치도 따르지 않으면 제재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뉴시스

코리아 세일 페스타

2016 쇼핑관광축제

2016. 9. 29(목) - 10. 2(일) 남부시장 일대(천변주차장)

남부시장 우수상품 60~20% 할인판매와 대형냉장고·세탁기 등 풍성한 경품추첨, 청년상인의 재미있는 체험가게, 한류스타 틴탑 공개방송 외 다양한 공연, 야시장 연장영업과 타임세일까지. 남부시장에서 만나요!

- 9월 29일(목) | 17:00 ~ 버스킹밴드 등
- 9월 30일(금) | 17:00 틴탑케이팝 노래자랑
- 18:30 개막행사
- 19:00 행복발전소 공개방송(틴탑 등)
- 10월 1일(토) | 17:00 ~ 월드뮤직밴드 등
- 10월 2일(일) | 17:00 ~ 포크밴드
- 18:00 영스타 트로트 페스티벌
- 20:00 경품추첨(대형냉장고·세탁기 등)